

시론
평화적 항쟁에 나서려는 위

남조선호전세력이 날로 강해지는 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에 혼비백산하여 《북미합방 및 장사정포위협약》에 대해 떠들면서 그 무슨 요격체계구축에 급급하고있다. 그들이 지난 2월 장거리사상대 공중요격미사일과 함선대공중미사일개발형에 대한 시험발사를 진행한데 이어 이른바 《한국형장사정요격체계》의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것이라고 떠들고있는것이 그것을 보여준다. 다 아느냐와 같이 공화국의 국방정책의 진수는 자기 힘으로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것이며 부단히 발전상되는 강력한 방위력으로 그 어떤 위협과 도전도 역제하고 평화를 믿음직하게 흔들림없이 수호하는것이다. 공화국은 전쟁 그자체를 방지하고 국권수호를 위해 말그대로 전쟁역력을 키우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호전세력은 그 누구의 《도발》이니, 《위협》이니 하며 미국을 위시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공포소리를 술선 선장하는데 나서면서 공화국의 자위적인 국방력발전권리까지 시비하다 못해 그 무슨 《대응》을 구실로 미사일요격체계 구축 등 군사적대결에 광분하고있는것이다. 공화국의 자위적인 국방력발전전에 도발이라느니, 위협이라느니, 긴장을 고조시키는 부적절한 행위라느니 하는 딱지들을 그 무

슨 위협에 맞선다는 소위 정의로운 간담에 부력증강,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고있는 남조선호전세력의 행태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기 위한 진짜 도발행위, 반공화국전쟁준비책동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남조선호전세력이 얼마나 동족대결에 환장이 되었는데 하는것은 초보단계에 있거나 실체가 없고 날조된 관련동영상을 내몰리는 기괴한 추태와 허세를 부린데서도 더 잘 알수 있다. 그에 대해 남조선의 전문가들은 당국이 《성공》이라고 하는것은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이다. 더우기 《한국형장사정요격체계》는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도 못하였다. 국방부가 미국이 2017년에 태평양상에서 실시한 요격무기체계의 시험발사장면을 끼워넣어 조작하고 《성공》을 자축하였다고 비난하였다. 똑바로 알아야 한다. 남조선호전세력이 공화국을 위협의 실체로, 억제력으로 할 상대로 보고있는것자체가 뼈속깊이 체질화된 반공화국적대립의 집적적인 표현이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에 따른 군사적도발이 지속되는 한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공화국의 자위적인 전쟁역력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더욱 강화될것이다. 정 필

인권에 대하여 말할 체면도 자격도 없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이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지난해 유엔 《북조선인권특별보고관》을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이 남조선에 기여들어 그 무슨 《북조선인권보고서》 작성을 위한 너털한 음모에 몰두한것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이 인간추물들은 남조선당국에 유엔주도의 《북조선인권결의안》 채택에 《공동제안국》으로 참가할것을 강박했는가 하면 공화국에 반감을 품고있는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에 악용할 자료수집에 열을 올리고있다. 뿐만아니라 남조선내부와 국제사회에 《대북베라살로 금지관련법》의 처벌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해보려고 회색조하였다. 이것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가 빛나게 구현되고있는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을 하려는 비열하고 추악한 짓거리가 아닐수 없다. 건전한 리성과 판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인정하고있는것처럼 공화국인민들은 모두가 인간이 향유할 모든 권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받으며 참다운 삶을 누리고있다. 다가오는 4월에 수많은 사람들이 평양의 송산, 송화지구에서 일어난 새 거리의 세집들이 입사하게 되는 하나의 사실을 놓고도 이에 대해 잘 알수 있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 현대

적인 살림집들에 입사할 사람들은 로동자, 지식인들을 비롯한 평범한 인민들이다. 쏟아지는 눈비와 불아치는 찬바람을 지함과 박막으로 가리우며 거리에서 침식하는 로동자, 방랑자들이 차고넘치는 미국과 서방세계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물 한방울에 우주가 비긴다고 《이 땅에서 모든 꿈이 이루어지리》의 노래가사에도 공화국인민들이 누리는 존엄하고 참다운 삶이 담겨져있다. 진짜 인권문제는 그 누구의 《인권》을 운운하는 미국과 서방세계에 모든 권리가 어지없이 인위발달되는 인간생지육이다. 지난해 《독일을 기념하는 명절》기간에도 수백건의 총격사건이 일어나 온 미국땅을 공포의 도가니속에 몰아넣었다. 뉴욕에서만도 26명이 목숨을 잃었다. 시카고에서는 83명이 총에 맞고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다른 지역에서도 무차별적인 총기란사건으로 술한 사상자가 났다고 한다. 인간의 가장 초보적인 권리인 로동의 권리마저 빼앗긴 실업자들이 득실거리고 집없는 사람들이 한지에서 밤을 지새며 죽어가고있는 나라, 각종 범죄가 판을 치고있는 나라,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 역시 미국이다. 뿌리깊은 인종차별은 지금도 사회생활의 각 분야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교육부문제때만 놓고보아

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프리카계와 라틴아메리카계 졸업생비율은 백인들에 비해 훨씬 낮다. 미국의 해당 당자들도 각급 교육기관들에서 학생들의 출신배경에 따른 차별적인 요소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소수인종 및 민족주민들이 범죄의 주요피해자로, 사법당국의 편견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흑인을 위주로 한 감금자들을 대상으로 의약품실험과 같은 비인간적인 행위들이 감행되고 있으며 백인이 아닌 인종들에 대한 경찰들의 인권유린행위가 계속되고있다. 미로동성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전국적인 흑인실업률은 백인들에 비해 2배나 높으며 굶주림에 허덕이는 흑인들의 수는 백인들보다 3배나 많다. 미국의 여성인권실태도 제일 한심하다. 미국이 운운하는 《여성존중》은 한갓 허울에 불과하며 여성들은 온

갖 멸시와 차별, 폭행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대다수의 미국여성들은 성적학대로 항시적인 불안과 공포속에서 살고있다. 89초당 1명의 여성이 성적학대를 받고있다. 어찌구무없는것은 미국에서 강간범죄자 1000명중 겨우 6명만이 형사책임을 진다는 사실이다.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의 인권실태도 미국과 다를바없다. 최악의 인권교살자들이 그 누구의 인권이나 인륜도덕에 대하여 논하는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인 것이다. 돌아서서 네 그림자를 보아라라는 말이 있다. 남의 흉을 보기 전에 자기 자신의 허물부터 돌이켜보라고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이 되새겨야 할 말이다. 인류의 지성은 《자유》, 《평등》으로 포장된 미국과 서방세계의 《인권》에 침을 뱉고있다. 본사기자 류현철



어리석은 자멸적망동

최근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이 새로운 북침작전계획수립을 위한 《전략기획지침》과 그에 따른 《전략기획지침》을 작성해포하였다고 한다. 이 《전략기획지침》에서 주목되는것은 앞으로 새로 작성하거나 수정보충하는 작전계획에서 공화국의 전쟁역력을 《선제타격》하는 작전안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박아넣은것이다.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이러한 움직임은 기이치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참화를 몰아올리는 위협천만만 군사적도발행위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말끝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에 대해 떠들고 있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은 공화국을 겨냥한 각종 군사수습을 빈번히 벌려놓고있는가 하면 스텔스전투기와 고고도무인정찰기를 비롯한 방대한 무기들과 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거나 개발배비하고있다. 이것도 성차지 않아

오늘에 와서는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을 공공연히 꺼내며 북침전쟁계획들을 수정보충하는데 달라붙고있는것이다. 물론이것이 과연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한것인가 하는것이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행태는 《대화와 평화》, 《긴장완화》의 간판뒤에서 북침의 칼을 버리는 극악무도한 적대행위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에게는 애당초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민족과 인류의 지향과 념원은 안중에 없고 오직 대결과 북침야망만이 있을뿐이다. 더욱 간과할수 없는것은 그들의 침략전쟁연습과 군사력증강, 전쟁휴게는 《안보》를 위한 정당한 행동으로 미화하고 공화국의 자위적활동은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묘사하는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비논리적이고 관습적인 우매한 태도이다. 이 얼마나 뻔뻔스럽고 후안무치한 짓거리인가. 제반 사실들은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이야말로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



미국과 남조선이 미국의 강압에 굴복하여 대로씨야제에 적극 가담해나선것으로 하여 경제와 외교,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피해가 급증하고 커다란 혼란과 불안에 빠져들고있다. 특히 해외의존도가 높은 남조선경제가 일제 될 손실의 엄청난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있다. 실례로 로씨야에 진출한 120여개의 남조선기업들에서 차



운 타격을 받게 되며 경제성장률은 0.3%이상 떨어지고 300억US\$이상의 재정손실을 보게 될것이라고 하고있다. 특히 로씨야가 남조선에 대한 수출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원유와 천연가스 등 대로씨야수입의존도가 20%이상인 품목만 해도 100여가지에 달하는 남조선경제는 커다

돈값 악취를 풍긴 선거판

남조선에서 진행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대해 언론들과 전문가들, 각계층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후보들과 정당들간의 무차별적인 폭로전과 헐뜯기싸움이라고 평하였다. 《력대 비호감대선》 이번 《대통령》선거를 두고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력대 비호감대선》이라고 비난했다. 《후보감은 넘쳐나는데 정작 뽑을 사람이 없다》는 여론처럼 《대선》에 나선 인민들의 인기는 말그대로 삼복칠 겹달도자신세였다. 남조선의 《뉴스1》을 비롯한 언론들은 《후보 호감도가 모두 30%에도 못미치고 비호감도가 60%안팎에 달하는것은 과거 대선과 비교할 때 보기 힘든 현상》이라고 전하였다. 정치전문가들도 여야양 모두가 지지표를 위해 선심성공약들을 랍말하고 상대방에 대한 공격에 힘을 냈고있지만 《누가 이기더라도 국민에게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되기 어려운 분위기》, 《유력 후보모두 국민과 유권자들에게 공격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선은 《올머 겨자먹기》 선택의 투표가 될것》이라고 평하였다. 《치열한 니전 투구》 경쟁과정에서 《선심성공약과 황색언어가 판무하고 음모론과 네거티브(비방)가 접입가경》이라고 전하면서 《후보본인의 부메의효과가 족리스크(위험)로 점철된것이 이번 대선의 특징》이라고 편일 대서필하였다. 언론들은 《력대급 비호감대선이란 박한 평가속에 여야후보들은 서로를 향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진흙

은 사건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하긴 정치인들자체가 《국회》에서 톱과 망치는 물론 최후판까지 사용하며 당리당락을 위해 퍼뜨리는 싸움을 벌리는것이 예상사로 되고있는 남조선에서 여당대표가 석방치송을 받은것은 별로 놀랄 일도 아니다. 특히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7일 선거운동을 벌리던 여당대표가 정제병명의 사람으로부터 쇠망치습격을 받은 《비열한 야합》, 《너절한 사기행위》 선거때마다 《정치공학》적 계산에 따라 서로 떨어졌다가 합치고 모였다가 흩어지는 행위가 벌어지는것 또한 남조선정치권의 뿌리깊은 악습으로 되고있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있는 《국민의 당》과 《국민의 힘》의 후보단일화논음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윤석열을 찍으면 1년뒤 손가락을 자르고싶을것》, 《야권후보단일화는 없다. 완주할것》이라고 했던 《국민의 당》 후보 안철수가 자기 한 말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윤석열을 지지하였다. 《대선》후 합당하겠다고 제입으로 말했으니 그의 지지자들이 격분한것은 응당하였다.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냐》, 《이번엔 다를줄 알았는데 또 철수냐》, 《철수의 정치인이

는 수출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원유와 천연가스 등 대로씨야수입의존도가 20%이상인 품목만 해도 100여가지에 달하는 남조선경제는 커다

한 수출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원유와 천연가스 등 대로씨야수입의존도가 20%이상인 품목만 해도 100여가지에 달하는 남조선경제는 커다

남조선에서 제 20 대 《대통령》 선거 진행 남조선에서 3월 9일 진행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서 보수야당인 《국민의힘》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윤석열이 군소한 차

날로 악화되는 여성들의 처지

지금 남조선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학대,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각종 범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있다. 사실 지금도 그렇게 해져서 안락사 제 목을 조르며 감금시키겠다고 협박하고 흉기를 찾아다녔다. 《제 몸을 자기 취향에 맞추려 했는데 그것을 거부할 때마다 죽이겠다고 협박했으며 《내 내 인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거야》 라고 했다. 《꼬박꼬박 말대꾸한다는 리유로 맞았다. 사실 지금도 그렇게 살고있다. 이것은 항시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근심과 불안속에 살아가는 남조선여성들의 비애에 찬 목소리들이다. 남조선에서 린인들 사이의 폭력으로 매해 목숨을 잃는 여성들은 20~30여명이며 생활난과 각종 학대로 인하여 자살한다. 남조선여성들의 임금수준도 남성로동자의 72%에 불과한것으로 하여 여성들이 《너자로 태어난것이 죄냐》고 울분을 터뜨리고있다고 한다.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는 《여성들의 생존기반이 무너지고 폭력과 혐오가 위협수위에 다달고있으나 이를 해결할 정책과 정치는 실종됐다. 오히려 정치가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참담한 현실이다》고 개탄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여성선진, 여성차별의 사회적공조가 만연된 남조선사회에서 여성들의 처지는 날이 갈수록 더욱 비참해지고 있다. 본사기자 황금숙

